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첨부자료: KLPGA 임원(이사) 입후보자 신은영 출마포부서 1부. 이상.

2023년 3 월 2 일

성 명 : 신 은 영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

KLPGA 임원(이사) 입후보자 출마 포부서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협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태 협회 회장님, 임직원 분들과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8년 협회 정회원으로 입문한 신은영이라고 합니다.

섬마을인 전남 완도 시골출신이며, 투어프로로서 좋은 성적은 내지 못하였지만, 학업을 계속하여 스포츠철학 박사학위 취득 후 레이크힐스 골프장 및 리조트의 사업본부장과 명지대학교 강의기회를 이어오며 학계와 산업현장에서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우리 협회(KLPGA)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사 4년 또는 교육분과위원 4년 간 협회업무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골프관련 종합솔루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용인시 체육회 이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공무원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마인드와 방향을 가지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해 봅니다.

먼저 우리 협회는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크나큰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국내 골프팬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관심과 환호, 뜨거운 갈채를 받았고, 또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우리 프로님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협회 또한 이러한 우리 프로들의 눈부신 발전에 발맞추어 정진해 왔음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 듣게 되는 문제점들은 우리 협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과 골프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망이나 염려를 떨쳐버리고 한층 더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들이 제시한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협회 조직체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열린 협회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가 지난 창립 40주년을 맞아 ‘비전 2028’을 선포한 것처럼, 협회 운영에 스마트한 환경을 구축하고, 협회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우리 프로들이 국내 투어뿐만이 아닌,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투명성, 도덕성, 열린 마인드는 협회 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아시아 골프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넘버 원 투어로의 도약,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 및 추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협회 만들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협회 모든 회원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협회의 외적인 성장에 못지 않게, 내적으로 협회를 구성하는 회원의 화합과 복리가 우리 협회의 건강한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미력하나마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원이라는 무한한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협회의 발전과 회원님들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

성명: 신 은 영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